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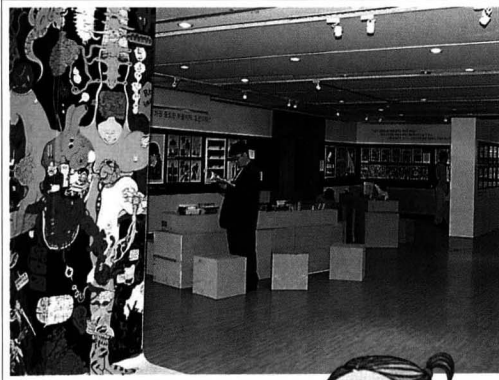


제 6 회 부천만화축제 국제코믹북페어

만화가 좋다! 부천이 좋다!
부천 복사골, 만화가 활짝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성완경)가 주최하고 부천만화축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화)가 주관한 '부천만화축제 국제코믹북페어'가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와 송내역 일원에서 열렸다. '만화야 안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는 세계만화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국내 만화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신간과 기획중인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만화관, 13개국 45개 출판사가 참여해 한국 독자들과 만나는 해외만화관을 중심으로, 카툰초대전, 학생만화공모작 초대전, e-book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특히 전시관 1층에 마련된 '한국의 만화가' 전에는 <홍길동>의 신동헌, <주먹대장>의 김원빈, <왈순아지매>의 정운경 등 전후 한국만화 1세대를 대표하는 원로 만화가의 핸드프린팅이 전시되어 한국만화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올해의 특별 전시 '유럽의 독립 만화전'에서는 이색적인 만화세계를 가진 유럽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 국내만화관에서 만난 이정연(17·경기에 숭고등학교 만화창작과) 양은 "애니메이션, 캐리커처 원리도 배우고 직접 그려도 봤는데 관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세계만화관을 먼저 둘러보고 왔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만화가 최고예요."라며 축제의 참여프로그램과 국내만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03년 출판계를 조명하고 출판공로 기린 책의 날 기념식 열려

제17회 책의 날 기념식이 2003년 10월 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후원, 한국도서보급(주)(대표 최태경)이 협찬한 이번 기념식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책의 날 기념사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포함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시행된 일이 올해 출판계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며 “국제출판협회IPA 상임이사국으로서 범세계적 출판교류와 협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출판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부표창 수여식에서는 대광서림 김주목 대표와 (주)아가월드 이석호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주목 대표는 과학기술 출판과 출판업계의 발전을 통한 출판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이석호 대표는 수준 높은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각기 인정받았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책 중심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앞당겨 이루어나가게 되길 바란다. 문화관광부는 양서 출판, 전문인력 양성, 세계적 전자책 주도, 유통의 현대화, 지방 출판문화의 육성 및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등 8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가겠다”며 출판산업의 비전을 약속했다.

프뢰벨러스트 2004 전시회

동화책 속 삽화 원화로 다시 만나요

어린이책 출판사 한국프뢰벨은 프뢰벨의 동화책에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원화를 전시하는 ‘프뢰벨러스트 2004 전시회’가 서울전시(조선일보미술관, 10월 1일부터 6일까지)를 비롯 전국에서 펼쳐진다. 이 전시는 어린이 전문 출판사로 알려진 ‘프뢰벨’이 자사의 이름을 걸고 실력있는 전문 작가들의 원화를 선보이는 전시로서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한다. 작가 25명의 200여 점 작품을 공개한 프뢰벨 측은 “어린이가 자기만의 언어로 그림과 만날 때 그림책의 의미가 깊어지고 유한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 행사가 100퍼센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졌음을 알렸다. 전시장에는 상투적인 원화그림 대신 작가들의 개성이 묻어난 원화들이 소개되어 아이들과 부모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7살짜리 자녀와 함께 이 행사를 찾은 김덕희 씨는 “전래동화에서 나왔던 주인공을 아이에게 실제 그림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주최측에서 나누어 준 스케치북에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다.

작품을 소개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독자적인 시각언어의 예술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뢰벨과 일러스트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프뢰벨러스트는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전주, 광주, 울산, 원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0월 31일 전주(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1월 6일 광주(민속박물관 갤러리), 11월 14일 울산(한마음회관갤러리), 11월 21일 원주(카톨릭센터)로 찾아가 전국 각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만날 예정(입장은 무료)이다.



자연 속에서 책을 읽어요

2003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이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렸다. '자연과 놀아요'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자연과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람객의 호기심을 일으켰다. 진행된 프로그램은 도서전시와 판매, 자연과 놀아요, 책문화 한마당, 세미나, 놀이 한마당, 체험학습 등 모두 일곱 개. 특히 체험학습, 세미나, 놀이 한마당 등으로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6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 홈페이지에는 행사를 관람한 부모들의 소감 및 바람이 약 300여 건 올라왔다. 화장실 변기가 집에 있는 좌변기와 같아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았으며 주최측의 배려에 감사하는 글을 남긴 관람객이 있는 반면 공연의 경우 인원제한이 있어 들어가지 못했거나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옥수수밭에는 옥수수만 있고 책이 없다, 4,000원 입장료가 너무 많다는 쓴소리도 들려왔다. **한민**



● 직 원 모 집 ●

우리 출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체로서 교재 및 기타 학술·교양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

학력	경력	성별	어학능력	연령
4년제 대졸 또는 동등학력 이상	출판기획 업무경력 2년 이상	무관	토익 870점 또는 토플(PBT) 600점 이상 토플(CBT) 250점 이상	만35세 이하

■ 세부사항

- 모집부문: 출판기획
- 모집인원: ○명
- 업무내용: 출판기획 및 해외도서 저작권 중계업무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대학로
- 급여수준: 연봉 3,000만원 정도
- 우대내용: 영어 능통 및 해외도서 저작권 중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영 어시험성적인증서(사본), 경력증명서(면접시 제출), 학력증명서(면접시 제출)

■ 접수장소 및 방법

- 접수마감: 2003년 11월 15일까지
- 접수처: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관리팀
- 접수방법: 전자우편 dongil@mail.knou.ac.kr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통지)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신체검사(최종합격자에 한함)



회 사 명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http://press.knou.ac.kr>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57번지 ☎ 3668-4762, 762-3826